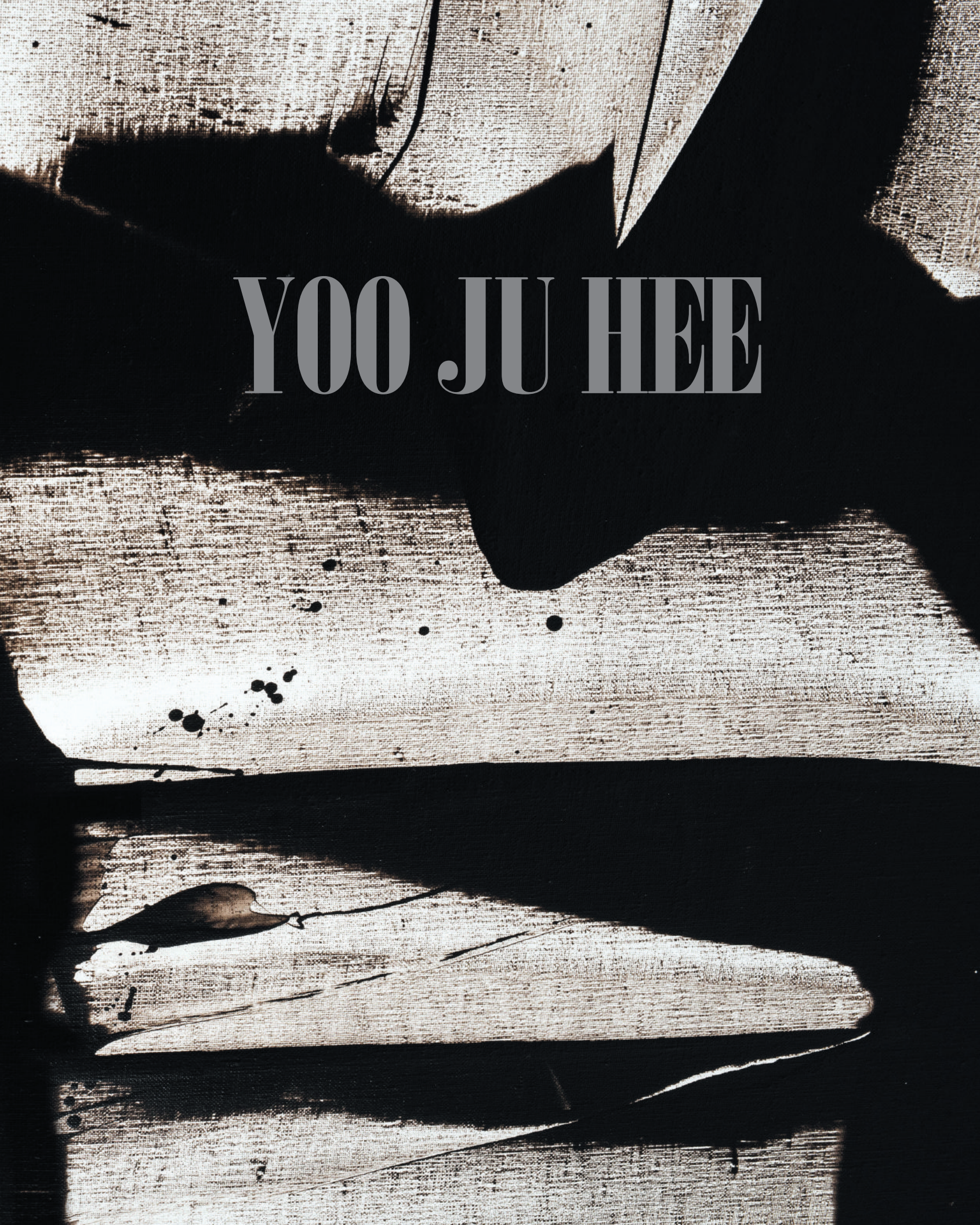




YOO JU HEE

수피아미술관 특별초대전

유주희

YOO, JU-HEE

**Repetition-
Trace of Meditation**

반복 - 사유의 흔적

2022.9.2.~12.31

SUPIA MUSEUM OF ART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캔버스 위를 채운 물감을 밀어낸다. 힘의 이동에 따라 물감의 단층이 드러나며 그 아래 저면이 비친다. 반복되는 행위로 중첩된 물감은 캔버스를 메우고, 그 흔적을 따라 파도가 일렁인다.

작가 유주희의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는 그 제목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점유하기 위해 반복적 행위를 극대화한다. 주로 청색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표현되는 그의 작품은 물감의 물질성을 이용해 제한된 캔버스 화면에 깊이를 더한다. 이를 위해 작가가 선택한 것이 스퀴지(squeegee)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일관적인 회화 도구를 벗어나 스퀴지를 붓으로 삼은 작가는 물감을 밀어내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면의 저면을 드러낸다. 우연적으로 드러난 캔버스의 표면은 스퀴지로 밀어내 쌓이고 중첩된 흔적과 대조되며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패턴에서 흥미로운 점은 반복적인 노동으로 생성된 패턴들이 주변의 자연적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부딪치고 깨지는 파도 혹은 소복하게 쌓인 눈 위에 흔적을 기록하듯 어느 순간의 흔적과 유사한 감성을 일깨우게 한다. 이는 경남 하동에서 지낸 작가의 유년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데, 형태에서 벗어나 색의 고유한 깊이에 천착한 데에 그 연결점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번 전시에서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연작으로 선보이는 최근작은 중첩되는 패턴에서 벗어난 시도가 엿보인다. 극적인 중첩으로 일렁이던 화면은 정적인 색 면으로 가득 차고, 면을 가르는 스퀴지 흔적은 마치 고대 벽화 속 상형문자의 형상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작품은 4점의 작품이 서로를 지탱하는 틀로서 작용하며 사각형의 벽을 이루고 공간을 압도한다.

작가의 연작 시리즈와 동일한 전시 제목처럼,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온 반복된 흔적을 다룬다. 반복되는 하나의 색 면에서 나누어진 공간들은 중첩되고 또 반복되며 그 아래 잠재된 서사를 일깨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 속 공간을 단서로 개인의 기억 속 어느 지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영 수피아미술관 기획실장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The paint is pushed off from the canvas. As per the moves of forces, the fault of the paint is exposed, and its bottom is revealed. The overlapped paint through repeated actions fills the canvas, and along with its traces, waves rise.

As you can guess from the title, the artist Yoo Ju-hee's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maximizes the repetitive behavior in order to occupy the screen. Her work, expressed in solid color mainly using blue, adds depth to the limited canvas screen by using the materiality of paints. To make this, the artist chose Squeegee. For about 20 years from the early 2000s to the present, the artist having used squeegee as a brush rather than general painting tools reveals the bottom of the screen through repeated actions of pushing away paints. The surface of the canvas that was accidentally exposed was pushed away by a squeegee, stacked, contrasted with overlapping traces and created irregular patterns. What is interesting in such patterns is that patterns generated by repetitive labor remind of the natural scenery of the surroundings. As if recording traces on the waves hitting and breaking or the snow heaped up, it reminds of the emotions that are similar to the traces of a moment. It reminds of the sensibility of the author's childhood spent in Hadong, Gyeongsangnam-do, and this is thought to have a connection to the fact that she scrutinized to the unique depth of colors free from shapes.

In this exhibition, the latest work presented as a series of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shows an attempt to deviate from the overlapping pattern. The screen that used to fluctuate by dramatic overlapping is filled with static colors, and the trace of squeegee cutting the side reminds of the shape of hieroglyphs in ancient murals. Especially, the large-scaled work installed in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hall acts as a frame to support one another among 4 pieces, forms a rectangular wall and overwhelms the space.

Like the exhibition title that is identical to the artist's series, this exhibition handles repeated traces that she has scrutinized for a long period. The spaces divided in the side of one repeated color are overlapped and repeated, and awaken the latent narrative beneath them. Through this expedition, by taking the space in the artist's work as a clue, it is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y to remind a certain moment in one's personal memory.

Jo Sun-young Supia Museum of art

‘고향’에 이르는 길

윤진섭(미술평론가)

I.

유주희는 단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다. 그것도 ‘청색(Anthraquinne blue)’을 사용하여 그리길 즐긴다. 이 색은 어두운 밤하늘이나 서늘한 그림자처럼 반투명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주희는 유독 수많은 청색 중에서도 이 색깔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제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컬러입니다. 제가 선택한 안트라퀴논 블루는 얇게 칠하면 밝음, 나아가 희망을 나타내지만, 여러 번 중첩하면 깊은 암연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또 내적 사유와 철학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며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 제게는 특별한 컬러지요.”¹⁾

사실 유주희가 검정, 흰색, 녹색, 빨강 등 다른 색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이 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Anthraquinne blue’는 이제 유주희의 ‘색’이 된 듯한 느낌이 짙다. 그런데 이 색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깊고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은 대체로 피하는 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중해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울트라마린 블루(Ultramarine blue)’나 가볍고 밝은 느낌이 드는 ‘스카이 블루(sky blue)’, 혹은 아주 깊고 진한 청색인 ‘IKB(International Klein Blue)’²⁾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유주희는 왜 유독 청색을 좋아하게 됐을까? 그녀의 회상에 의하면 경상남도 하동 출신인 자신의 유년기 체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하동의 섬진강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본 푸른 강물과 송림, 모래밭 등등 주변을 에워싼 자연 경관이 자신의 미의식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요인들이 훗날에 그린 일련의 청색 단색화 연작에 잘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반복-명상의 흔적(Repetition-Trace of Meditation)〉, Acrylic on canvas, 100x100cm, 145x145cm, 2017〉연작들은 각기 미묘한 색의 뉘앙스는 서로 다르지만, 얇은 물결이 치는 수면을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단색의 추상화라기보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본 물의 풍경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³⁾ 따라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물결 그림이 물결 부분에 한정시켜 보면 구상이 아니라 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유주희의 스퀴지(squeegee)로 죽죽 밀어 그린 단색 그림을 가리켜 추상화가 아니라 구상화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어느 국면에서 보면 물결이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도출된다. 도대체 추상이란 무엇이고 구상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면 구상(具象/figurative)이고, 재현적 속성이 없으면 추상(抽象/abstract)인가? 실타래처럼 엉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으면 추상이고, 실타래처럼 엉킨 지렁이들을 똑같이 그리면 구상인가? 도대체 구상과 추상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분명 예술철학의 과제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유주희의 작품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중요한 예술철학의 질문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II.

유주희의 〈반복-명상의 흔적(Repetition-Trace of Meditation)〉연작은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그것은 유주희가 작품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스퀴지를 사용해 그림을 그린 그녀 특유의 회화적

1) 김수영의 그림편지, 유주희 작 ‘Repetition Trace of Meditation’, 영남일보 2018년 10월 19일 자.

2) 프랑스의 신사실주의 작가인 이브 클랭(Yve Klein)이 발명한 청색을 가리킴.

3) 이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작품의 뚜렷한 예는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A Bigger Splash, 1967〉, 〈Portrait of an Artist(Pool with two figures)/1972〉등 일련의 물결을 흰색의 가는 곡선으로 단순하게 묘사한 일련의 풍경화들이다.

기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녀 특유의'라고 한 것은 한국의 정평있는 단색화 작가들 중에서 스퀴지를 것처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사용한 작가는 유주희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퀴지에 의한 반복적 수행의 제작법은 유주희가 고안한 그녀 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해당하는 2001년 무렵의 유주희 작품들을 살펴보면 최근 작품들과는 현격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거기에는 '스타카토'식으로 똑똑 끊어서 스퀴지의 자취를 남기는 기법이 보이지 않는다. 생짜의 아사천 위에 검정과 흰색의 아크릴 물감을 얹은 뒤 스퀴지로 민 <형(形)-태(態)/Shape> 연작은 구성적인 색채가 농후한 작품들이다. 그것은 처음에 'L'자 형태로 화면을 가르는 구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같은 해에 실험한 '전면회화(all-over painting)'의 관습에 따름으로써, 검정 주도에 흰색이 따르는, 즉 흰색이 언뜻 언뜻 모습을 드러내는 검정회화의 형태로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 캔버스의 한쪽 귀퉁이를 여백으로 남기는 실험이 있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III.

<존재 너머의 풍경(Landscape over Being)> 연작에 이르러 유주희는 비로소 '풍경'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대략 2004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시기이다.⁴⁾

이 시기 그림의 특징은 캔버스 화면의 하단부에 단색으로 마감하게 색칠이 된, 가로로 긴 색면이 나타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색면은 청색, 검정, 갈색, 베이지, 연녹색 등등 다양한 색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윗부분에 예의 검정과 흰색이 혼합돼 스퀴지로 민 넓은 색역(色域)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의 풍경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특히 이 그림을 '추상 풍경화(abstract landscape)'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과 그 위에서 요동치는 듯한 과격한 스퀴지의 자취들에 있다. 일견 보기에 이 연작의 그림이 자아내는 풍경은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칠고 황량한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찌뚱하게 갠 검정과 흰색 아크릴 물감을 스퀴지에 얹어 가로 세로로 반복해서 온 힘을 다해 민 기세(氣勢)가 이 연작에서 생생하게 느껴진다. 유주희의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퍼포먼스는 화면의 아래에 있는 차분히 가라앉은 넓은 색면이 자아내는 평온함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마치 희로애락의 감정이 들끓는 인생에 비유라도 하듯, 중년의 연륜에 접어들어 나타난 유주희의 관조적 표현이 눈길을 끈다.

비교적 짧은 시기의 <청색(Blue)>와 <무제(Untitled)> 시기를 거쳐 유주희는 드디어 가장 긴 기간을 점유한 <반복-명상의 흔적(Repetition-Trace of Meditation)>(2009-현재)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기법이 바로 '스타카토'식으로 짧게 끊어지는 스퀴지의 흔적들이다. 색깔은 주로 청색이나 때로는 베이지, 연녹색, 갈색, 검정, 빨강 등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주희는 오래 지속한 '스타카토'식의 스퀴지 기법이 지루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자를 이용한 설치작업을 실험하기도 했으며(사라예보/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감성생태(Eco-Sensibility)'전), 스퀴즈로 민 뒤 손가락으로 행위를 가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물이나 하늘, 숲 등등 자연에 대한 은유로서 유주희의 단색화는 명상적이며 치유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유주희가 자기 작업의 소재로 선택한 자연은 곧 영적 인간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고향(die Heimat)'에 해당한다. 언젠가는 고향을 찾게 될 운명에 처한 인간은 자연의 품에 안김으로써 비로소 심적인 안식을 취하게 된다. 유주희의 그림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유주희 화집, 01-19 YOO JU HEE, Repetition-Trace of Meditation/Blue/Untitled/Landscape over Being
형(形)-태(態) Shape, 2019

Reaching back to Die Heimat or hometown

Yoon Jin-seop

I.

Yoo Ju-hee is an artist painting with only one single color — anthraquinone-blue. This color has a translucent and deep taste like a dark night sky or a cool shadow. Then, why does she prefer this color among so many blue colors. Why? In an interview, she once said:

"What matters most for me is the color. The anthraquinone blue, the color I chose, stands for brightness and hope when lightly painted, but when colored with overlapping it means a deep dark world. Another reason it is so special for me is that I can express it to encompass all my inner thoughts and philosophies."

This does not mean that she does not use other colors such as black, white, green, and red at all. However, the anthraquinone-blue now feels like the color which exists for her because she uses it so frequently. But as aforementioned briefly, feeling so abysmal and gloomy, most painters avoid using it. Instead, they prefer other colors like ultramarine- blue smelling like Mediterranean Sea, sky blue feeling light and bright, or IKB (International Klein Blue) which is a kind of very deep blue-color.

Then, why did she get into the blue among many colors? She recalls, that was largely influenced by her childhood when she lived near in Hadong village of Gyeongsang South Province and played with friends near the river called Seomjin. Playing there, she always could see natural scenery surrounding the blue river, pine forest, and sand fields. And that memory helped her a lot in forming her aesthetic sense. In fact, it can be seen that these factors are well illustrated in a series of blue monochromatic paintings drawn in her later life.

For example, the series "Repetition-Trace of Meditation", Acrylic on canvas, 100x100cm, 145x145cm, 2017" reminds us of a landscape viewed from above the surface of a thin wave, through differing in subtle nuance. It does not look like monochromatic abstract-painting, but rather expression of water observed from fair distance.

Therefore, as we can say that the wave image of David Hockney is not just an idea, but an abstract painting, we also can say that her work straightly painted with squeegee is not abstract, but presentational painting. That is because, in a certain aspect, the waves seem to be represented in this painting.

Then one question is drawn from the fact above - what defines abstract painting and figurative painting? Can we simply say that it is figurative if containing concrete shapes, and that it is abstract if without representational elements? Or, could we say that it is abstract if looking tangled so complicatedly like a thread, and that it is figurative if having copied same tangled worms in a single painting? What is the boundary between idea and abstraction?

Those questions obviously belong to main themes of art philosophy. Then what about her work? In the same sense, it can be seen that it results in an important question of art philosophy.

II.

Her work-series <Repetition-Trace of Meditation> reflects repetitive actions, as implied by title. And such style is based on her own pictorial skills

applying squeegee, which has been steadily developed since the early 2000s when Yoo Ju-hee began her work. And we can say it is "her own style" because she is the only monochromatic artist having used squeegee for such a long time, in Korea.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he technique of repeated painting with squeegee belongs to her.

When looking at her works around 2001, early days in her career, she painted quite differently from what she does now. Above all, there was no 'staccato' technique to cut off and leave a trace of the squeegee. In her work-series <Type-Tae/Shape> ,

paint squeezing black and white acrylic paint on top of the raw linen, we can see rich figurative colors. It initially had an "L" shape crossing over the whole canvas, but later it turns to the form of a black painting in which white appears in a flash, in line with the "all-over painting" style she experimented in the same year. And she also tried another style leaving blank for a corner of the canvas, but that experiment was just tem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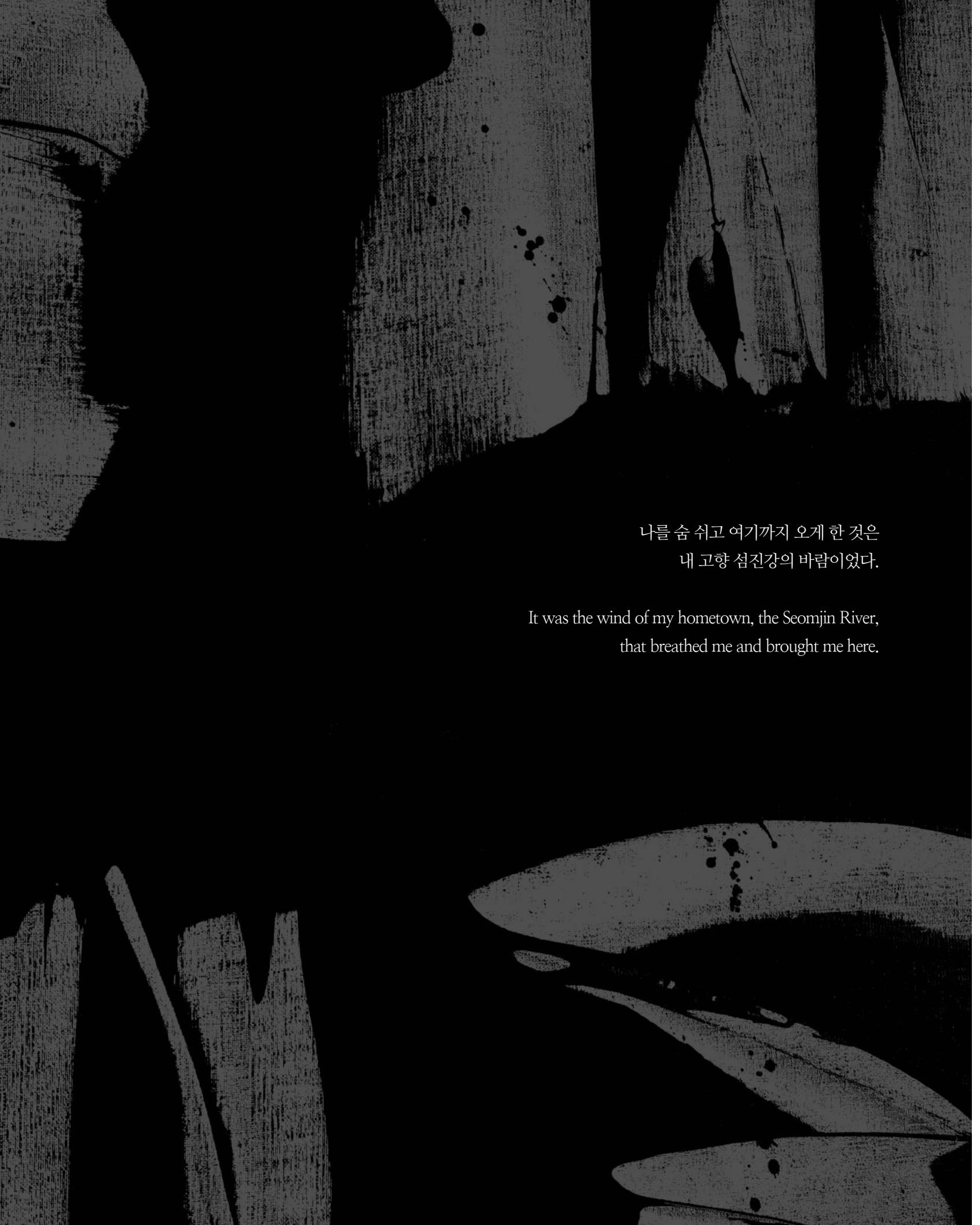
III.

By the time she finished the work <Landscape over Being>, she began thinking about the artistic meaning of the landscape — roughly during 2004 - 2009. During that period, her style is remarked with a neat and horizontally-long color at the bottom of the canvas. In addition, the color surface had various colors such as blue, black, brown, beige, and light green. And above that part, we see

a wide color-area applied with squeegee with mixture of black and white. Would that be for a landscape? Perhaps. In particular, the basis for viewing this painting as an abstract landscape lies in the horizon across the canvas and the traces of radical squeezing by which it looks like fluctuation above it. At first glance, such scenery reminds us of a stormy night sky. Besides, we can feel a strong might which would have been fully applied repeatedly putting black and white acrylic paint on the squeegee. And its vividness is further amplified by the tranquility created by the calm wide color surface at the bottom of the canvas. And after entering into middle-age with richer experiences, her style becomes more contemplative as if to liken it to a life lived with all sorts of human emotions.

After a relatively short period when she painted <Blue> and <Untitled> respectively, she finally turns to the period represented by <Repeat-Trace of Meditation> (2009-present), the longest one in her career. The technique during this period looks like traces of a squeeze that is cut short in the 'staccato' style. The colors are usually blue, though sometimes beige, light green, brown, black, or red. She also tried establishment work using box (before when she made exhibition <Eco-Sensibility> at Sarajevo of Bosnia Herzegovina) to avoid getting bored with the long-lasting "Staccato" squeeze technique, and then acted with her fingers.

As a metaphor for nature such as water, sky, and forest, Yoo Ju-hee's monochromatic painting has a meditative and healing effect. Nature, which she chose as the subject of her work, corresponds to "die Heimat (hometown)" in Heidegger's words, being that the spiritual human-being must return soon. The human-being is destined to be back to their hometown someday take mental rest by being embraced by nature. And that explains why the significance of Yoo Ju-hee's painting is so tremendou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person's face in profile, looking down. The face is partially obscured by shadows and has a textured, painterly quality. The background is dark and textured, with some light-colored, vertical, brushstroke-like elements on the right side.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artistic.

나를 숨 쉬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내 고향 섬진강의 바람이었다.

It was the wind of my hometown, the Seomjin River,
that breathed me and brought me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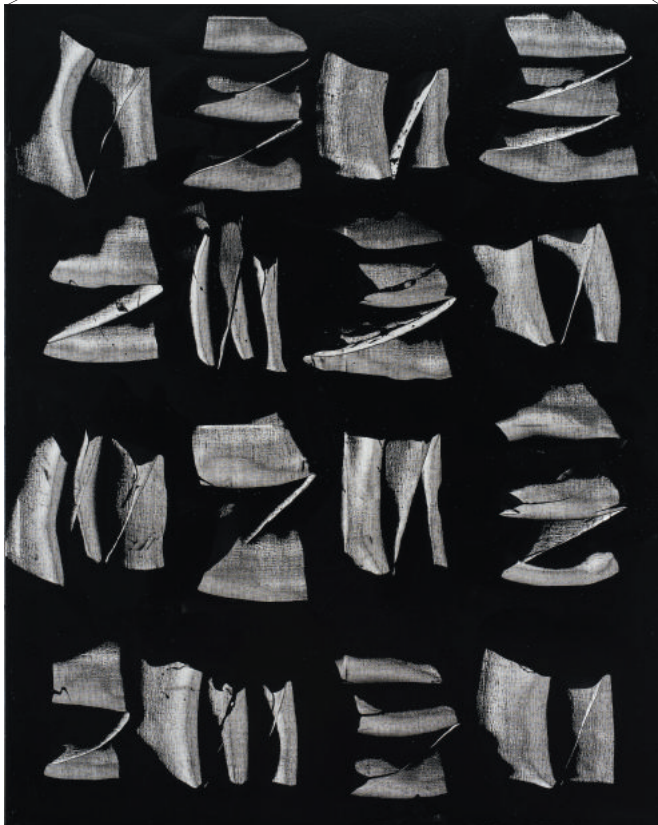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81.8 x 227.3cm
Acrylic on canvas
2022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81.8 x 227.3cm
Acrylic on canvas
2022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81.8 x 227.3cm
Acrylic on canvas
2022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81.8 x 227.3cm
Acrylic on canvas
2022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81.8 x 227.3cm
Acrylic on canvas
2022



1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30.3 x162.2 cm
Acrylic on canvas
2022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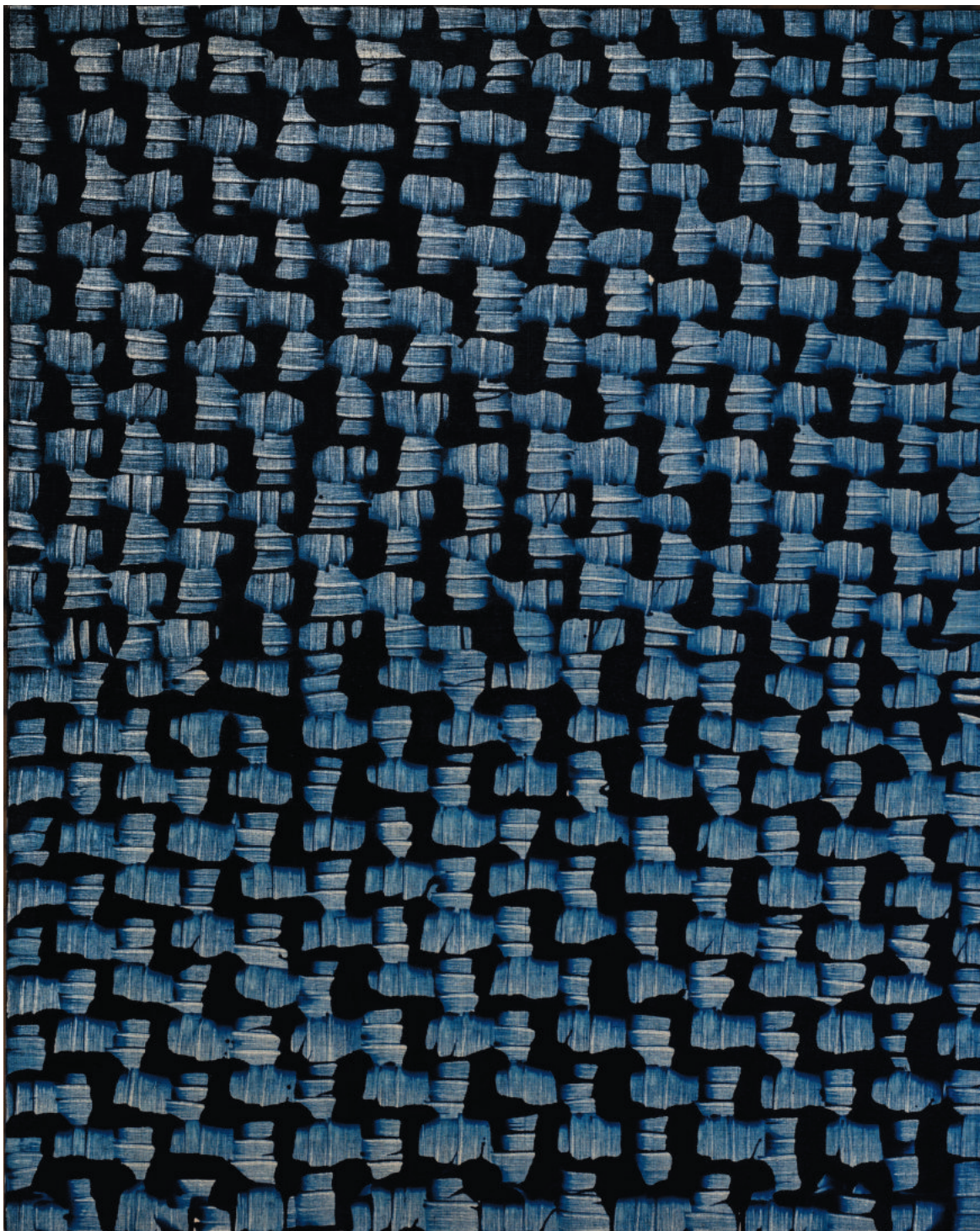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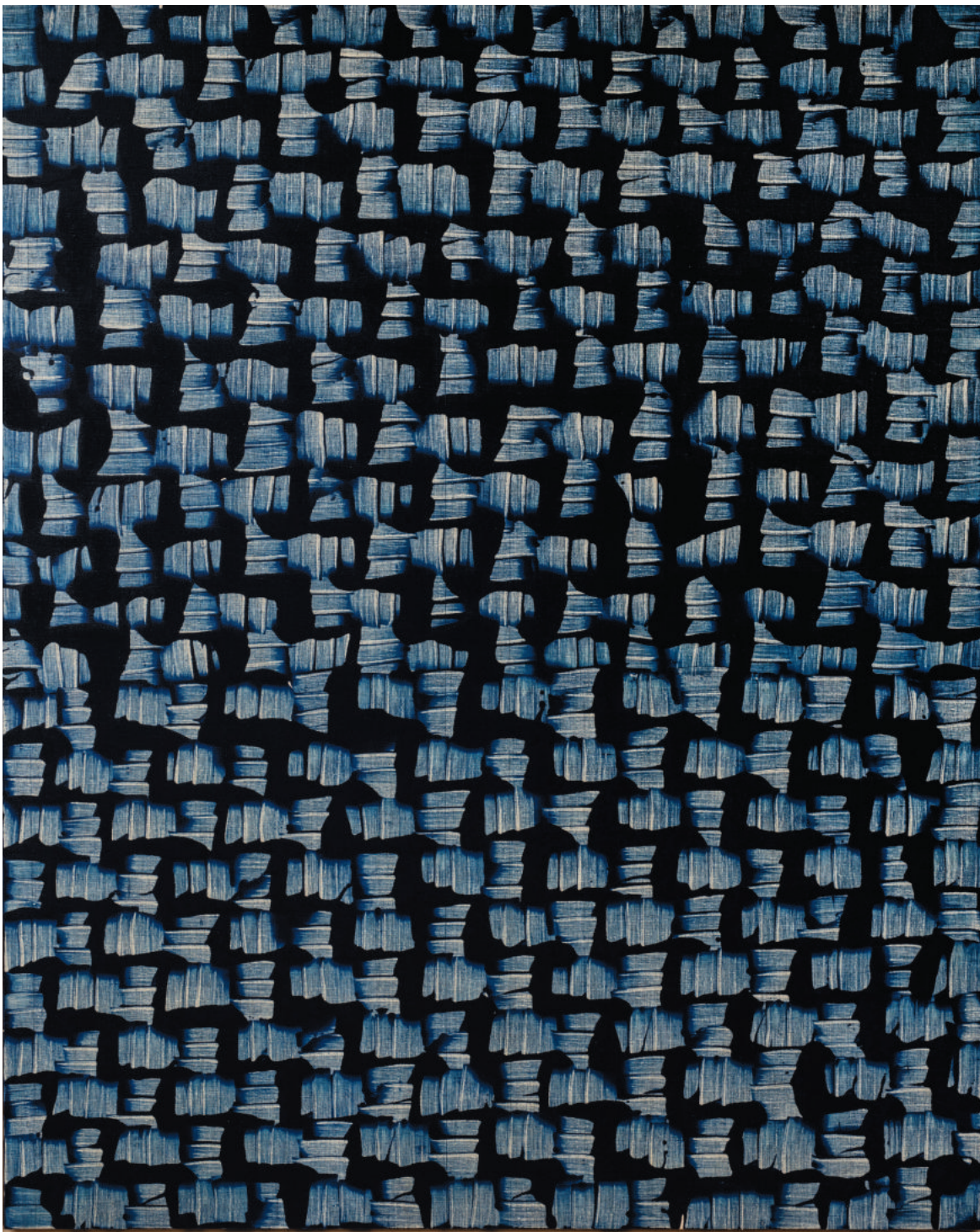
2/3/4/5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30.3 x 162.2 cm
Acrylic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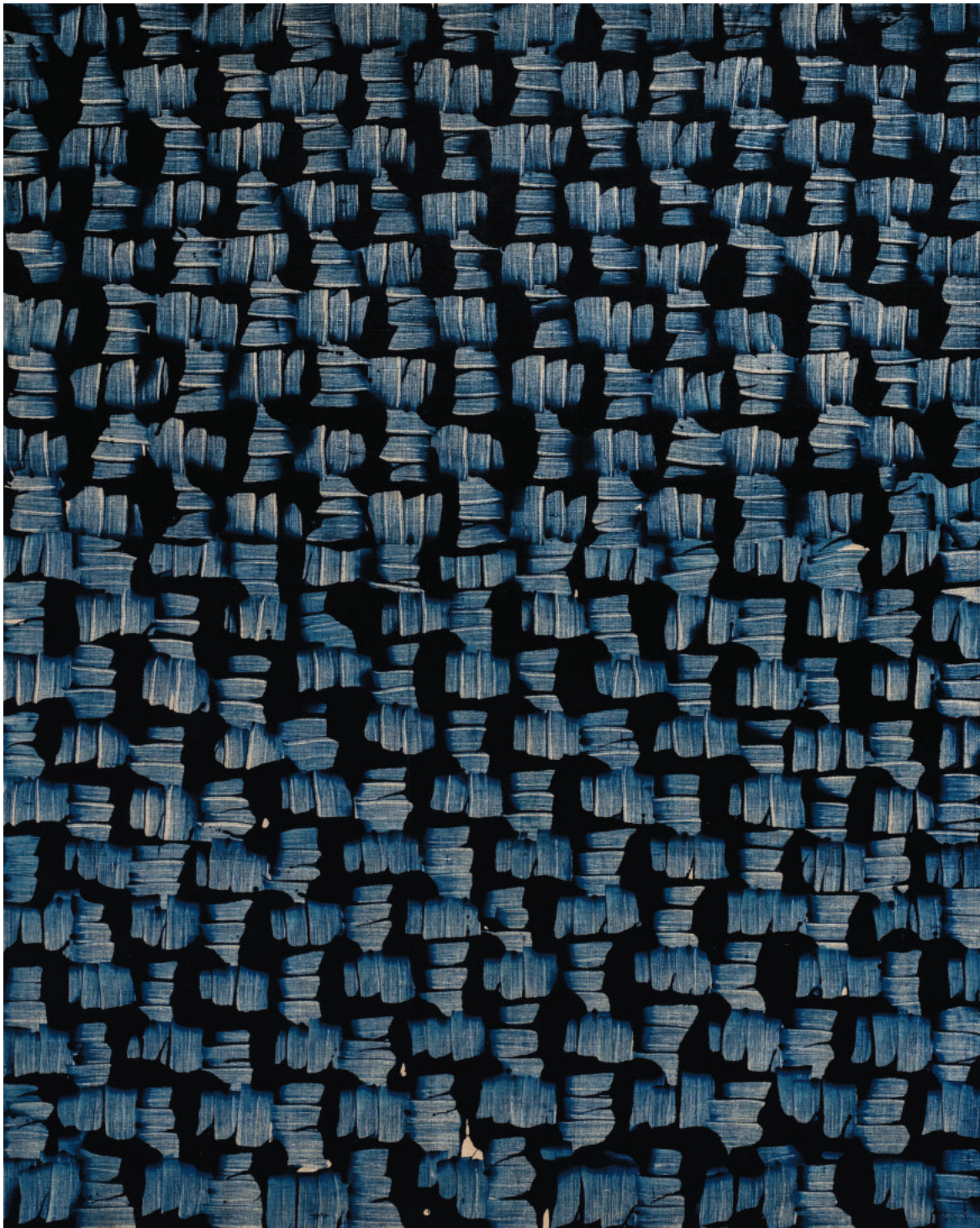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30.3 x 162.2 cm
Acrylic on canvas
2020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30.3 x162.2 cm
Acrylic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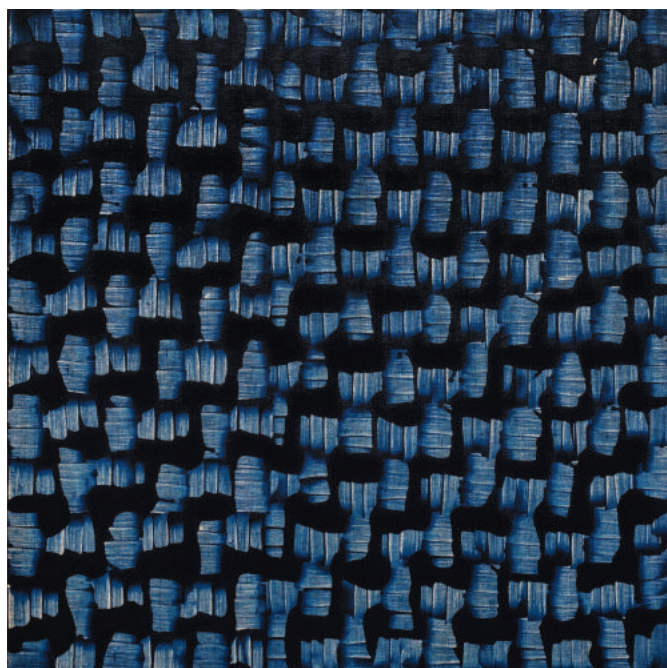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30.3 x 162.2 cm
Acrylic on canvas
2020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00 x100 cm
Acrylic on canvas
2020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00 x100 cm
Acrylic on canvas
2020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162.2 x130.3 cm
Acrylic on canvas
2022



Repetition - Trace of Meditation







유주희

YOO, JU-HEE

劉株熙



1958 경상남도 하동 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2022 동원화랑, 대구
수피아 미술관, 칠곡
2020 시안미술관, 영천
2019 Iconoclastes Gallery, Paris
2017 동원화랑, 대구
2016 Iconoclastes Gallery, Paris
2015 갤러리 경, 대구
2013 B B Space Gallery, 대전
소현 컨템포러리, 대구
2011 맥화랑, 부산
2010 한기숙 갤러리, 대구
2008 갤러리 보우, 울산
갤러리 이듬, 부산
2006 갤러리 보우, 울산
두산 아트센터, 대구
2004 이오스 갤러리, 서울
2002 SPACE 129, 대구
2001 문화예술회관, 대구

단체전

2022 색면대화나 자신에게 나(我)를 묻다, 소현갤러리, 대구
현대미술가 20인의 동시대 수작, 환갤러리, 대구
유주희, 차규선 2인전, Iun Gallery, 서울
2021 현대미술 시선전, 문화예술회관, 울산
Discoveries 2021. 헤럴드아트데이, 광고
봄 내려온다, 청주갤러리, 청주
2020 각각의 색,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9 Post Avant- Garde in Korea, G 291, 서울
사월애(四月愛), 동원화랑, 대구
2018 감성생태, 시립미술관, 사라예보
춘천-현대미술 흐르다, 춘천미술관, 춘천
현대미술 조망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아트프로젝트 2017, 울산
대지의 숨결, 수성아트피아, 대구
남만-부산, G 조이, 부산

2016 대구미술 아우르기,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뉴욕 국제교류, SIA Gallery, New York
현대미술의 동행전, 청주문화관, 청주
2015 감각의 전이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한,일 현대미술 교류, 시코쿠무라 갤러리, 타카마츠
한국현대미술초대, 문화예술회관, 울산
대구 중견 7인 위풍당당, 아양아트센터, 대구
2014 WORK & WORK, 두류갤러리, 대구
1973,8,13 종로에서 경상감영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구
2013 Color in art전, 이듬갤러리, 부산
Light and Dream of Art, Hutchins Gallery, New York
예술-창조공간에 들다, 문화예술회관, 대구
2012 한기숙 갤러리 개관 10주년 - "The power"전
- 한기숙갤러리, 대구
현대미술의 장-동상동몽전, 서울미술관, 서울
2011 토마갤러리 개관 - 현대미술작가 초대전, 토마갤러리, 대구
한국 미술 서양화1전, 브라운 갤러리, 서울
2010 현대미술의 동향 - SMART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부조화속의 조화전,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표현! 그 다양성의 집점전, 동구문화회관, 대구
2009 국제미술교류전, 나가사키 KTN 갤러리, 일본
한양 안산 "자산"미전, 한양대박물관, 안산
2008 대구 현대 미술 상황전, 시민회관 전시실, 대구
평면회화의 단면전, 문화예술회관, 전주
미술인의 날 특별 초대작가전, 공평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압량벌에 서다"전, 공산갤러리, 대구
수성아트피아 개관 - 젊은 그들, 삶의 표상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대구-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교류전, 마니쉬 미술관, 러시아
태화강 국제설치 미술제 - A Shining Drawing Exhibition
- 갤러리보우, 울산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미술가 도시를 디자인하다]전
-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6 국제 현대 미술제, 세종문화회관, 서울
대한민국 현대 미술 초대전, 라인갤러리, 서울
동-서 미술의 현재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수상

2001 프랑스 한국현대미술전 파리 시장상
2001 신조미술협회 공모전 대상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시안미술관, 영천
프랑스 파리 시청, 파리, 프랑스
경북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대구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대구
KNN 부산, 경남 대표방송, 부산
대구 텍스타일Complex, 대구
참 저축은행, 대구
오리엔탈 쉬핑(주), 부산 외 다수 개인소장

현재

한국미술협회, 신조미술협회 회원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
대구아트스퀘어 청년프로젝트 운영위원 역임
대구시 미술장식 심의위원 역임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 겸임교수 역임

참고문헌

2020 문화로 채움(TBC), 12월 15일 방영
2017 월간퍼블릭아트, 유주희의 스퀴즈화:
단색화의 회화적 전략, 4월호, pp72 ~ 79
문화로 채움(TBC), 5월 21일 방영
2014 알지만 모르듯이, 분당수필문화회, pp108 ~ 109
2011 TV갤러리(KNN), 11월 24일 방영
아침뉴스(KNN 모닝와이드), 11월 29일 방영
지상갤러리 대구예술 제130호, p43
형평과 정의 제26집, 화보 pp10-11
2010 TV 갤러리 (KNN), 5월 18일 방영
"Art Guide", Magazine <주간한국> p94
2008 아침뉴스 <섹션 KNN>, 6월 방영
2007 "작가소개", Woman life, pp79 ~ 81
2006 케이블TV 대구뉴스, 9월 26일 방영
TBC 아침뉴스 <문화 문화인>, 9월 28일 방영
2004 "Artist Forum", Art Price 11월호, pp82 ~ 83
"지역 여류 화가 뜬다" 대구신문 11월

E-mail yjh4603@hanmail.net

Homepage http://yjhart.com

YOO, JU HEE

BIOGRAPHY

Born in Hadong, South Korea

Works & Live in Daegu

M,F,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 Korea

B,F,A Dept of Paintings, Yeungnam Univ, Korea

SOLO EXHIBITION

- 2022 Dongwon Gallery, Daegu
Supia museum, Chilgok
- 2020 Cian museum, Yeongcheon
- 2019 Iconoclastes gallery, Paris
- 2017 Dongwon Gallery, Daegu
- 2016 Iconoclastes Gallery, Paris
- 2015 Gallery Kyoung, Daegu
- 2013 BB space, Daejeon
So heoun contemporary, Daegu
- 2011 Max Gallery, Busan
- 2010 HanGiSook Gallery, Daegu
- 2008 Gallery Bow, Ulsan
Gallery Idm, Busan
- 2006 Gallery Bow, Ulsan
Dusan Art Center, Daegu
- 2004 EOS Gallery, Seoul
- 2002 SPACE 129, Daegu
- 2001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GROUP EXHIBITIONS

- 2022 Color conversation 2022, Soheon Gallery, Daegu
YOO JU HEE, CHA KYU SUN Duo Exhibition, Liun Gallery, Seoul
Contemporary figures of 20 contemporary, Hwan Gallery, Daegu
- 2021 A Glance of modern art, Ulsan culture center, Ulsan
Discoveries2021, Herald artday, Suwon
Spring is coming, Cheongju Gallery, Cheongju
- 2020 Color of each, Daegu art factory, Daegu
- 2019 Post Avant-Garde in Korea, G291, Seoul
April-love, Dongwon Gallery, Daegu
- 2018 Eco- Sensibility, Collegium Artiscum, Sarayebo
Chuncheon- flow in modern art, Chuncheon Art museum, Chuncheon
An exhibition of modern art, Culture art center, Daegu
- 2017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project ulsan, Ulsan
Breath of the earth, Suseong artpia, Daegu
Romance_Busan, Joy gallery, Busan
- 2016 Mergence in Daegu art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art interchange Exhibition, SIA Gallery, New York
Accompany with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eongju art Center
- 2015 Spread of Somatosensory system Exhibition, Suseong artpia, Daegu
Korea, Japan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Shikokumura Gallery, Japan
Invited of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ulture art center, Ulsan
Daegu middle age seven member Exhibition, Ayang artcenter, Daegu
- 2014 WORK & WORK Exhibition, Duruy Gallery, Daegu
1973, 8, 13 From Jongro to Gaengsang park, Daegu Culture Art Center, Daegu
- 2013 Color in Art Exhibition, Idm gallery, Busan
Light and Dream of Art, Hutchins Gallery, New York
Art_Enter the creative space, Culture Art Center, Daegu
- 2012 The Power Exhibition, HanGiSook Gallery, Daegu
Festival of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eoul museum, Seoul

- 2011 Toma gallery opening_invite a contemporary artist, Toma gallery, Daegu
Korea Art Western Painting 1 Exhibition, Brown Gallery, Seoul
- 2010 Super Message of Art,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Harmony of Inharmony, Jeonbuk Art Museum, Jeonju
Expression! the Diversity Point of Contact, DongGu Culture Center, Daegu
- 2009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Nagasaki KTN Gallery, Japan
Hanyang Ansan "Property" Art Exhibition, Hanyang University Museum, Ansan
- 2008 Currents of Daegu Contemporary Art, Daegu Civic Center, Daegu
New Aspects of Korean Painting, Jeonju Culture Art Center, Jeonju
Invite the special artist on artists day, Gongpeong art space, Seoul
- 2007 Stand in the Abryang plain, Gongsan gallery, Daegu
Susung Artpia Opening "The young ones, life signs", Susung Artpia, Daegu
Daegu, St. Petersburg Fine Arts Exchange Exhibition, Manish Art Museum, Russia
Taeha River International Festival-A Shining Drawing, Gallery Bow, Ulsan
City Design Project, Bongsan Culture Center, Daegu
- 2006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SEJONG Culture Art Center, Seoul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Line Gallery, Seoul
Present of East & West Exhibition, Gyeongnam Province Museum, Changwon

AWARDS

- 2002 Awarded Paris mayer prize in Coree 2002 Art contemporain
- 2001 Awarded Grand prize in Shinjo Art Contest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Cian museum, Yeongcheon
France Paris City Hall, Fra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ine's specialty graduate school, Daegu
Korea fashion Industrial center, Daegu
KNN Busan, Gyeongnam broadcasting station, Busan
Daegu textile Complex, Daegu
Charm Savingsbank, Daegu
Oriental shipping co.ltd, Busan

PUBLICATIONS

- 2020 Filling with Culture [TBC], December 15, Broadcast
- 2017 Squeezee Painting :Pictorial Strategy in Dansaekhwa, Public art, April
Filling with Culture [TBC], May 21, Broadcast
- 2012 "Artist Forum", Art Price, July, pp108-109
- 2011 TV Gallery (KNN), November 24, Broadcast
Morning News [KNN Morning wide], November, 29, Broadcast
supremacy, The Art of Daegu, 130, p43
Equilibrium and define, 26, pp10-11
- 2010 TV Gallery <KNN>, May, 18 Broadcast
"Art Guide", Magazine <Korea Weekly>, p94
- 2008 Morning News <Section KNN>, June, Broadcast
- 2007 "Introducing Artist", Woman life, p79 ~ 81
- 2006 Cable TV Daegu News, September.26, Broadcast
TBC Morning News <Culture, Cultural>, September.28, Broadcast
- 2004 "Artist Forum", Art Price November, p82 ~ 83
"Famous of Region Woman Artist". Daegu News Papers, November

PRESENTLY

Member of Korean Art Assn, Shinjo Assn. Invited Artist Daegu Art Exhibition
A Judge Of Daegu City Art Decoration
Adjunct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E-mail yjh4603@hanmail.net
Homepage <http://yjhart.com>



유주희 YOO, JU-HEE

Repetition-Trace of Meditation

반복 - 사유의 흔적

2022.9.2.~12.31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미술관

The art museum which we will create

발행처 수피아미술관

발행인 홍영숙 관장

임배원 대표

발행일 2022. 11.

기획 조선영

진행 태병은

도슨트 이해운

사진 장욱준

디자인 비숍디자인

주최·주관 수피아미술관

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피아미술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

T.054.977.4967 E.supiamuseum@gmail.com

www.supiamuseum.com

관람시간 10시~18시

©Supia Museum of Art, 2022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수피아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